제5호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0-5 (9월/10월)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 1
2. 주요 특징 ····· 2
3. 개별 사설 분석 ····· 6

INSS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9. 5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자
2	9. 9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3	9.17	피해복구전역에서의 승전포성으로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4	9.19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하자
5	9.21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쳐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6	10. 1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자
7	10. 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8	10.10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정치로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9	10.16	80일전투에 총매진하여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나가자
10	10.19	80일전투에서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
11	10.25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12	10.26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8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2

주요 특징

◆ **9월의 사설들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사설들이 차지**

- 예기치 않은 대규모 수해로 인해 정면돌파전 수행과 예정된 정치일정 소화에 차질을 크게 빚을 것을 우려

- 주로 수해복구사업을 당과 인민 간의 일심단결과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의 기회로 이용하는 논리 활용

◆ **9월에는 수해복구 문제에 집중하다가 당창건 75주년을 열흘 앞두고 동 행사의 차질을 우려, 10월 첫 사설에서 방역대책 문제를 다룬 사설 게재**

* "현시기 비상방역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것은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빛내이고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정치이념이자 정치방식"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과 지도적 지침으로 존속될 가능성 주목**

- 그 동안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념',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의 담론발전 추세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로 수놓아가고 있다"라고 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울 가능성 시사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이념과 정치방식으로 정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처음이므로 당분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실천 이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점증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정치리념, 정치방식이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도 인민대중제일주의이고 우리 당의 력사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행로였으며 우리 당이 75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빛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바로 여기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이 있고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비껴있다”

-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라는 명제를 활용하여 양자를 조합할 가능성도 주목

◆ **8차 당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강국건설의 새로운 투쟁강령 제시”라는 표현을 사용**

- 투쟁강령은 특정한 정책과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지침이므로 전략적 노선의 하위개념에 해당

* 조선말대사전은 강령을 “활동이나 사업 등에서의 중요한 지침이나 중요한 내용과 계획”으로 정의

- 따라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 제시보다는 기존의 전략적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면돌파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쟁강령(방침)을 제시할 가능성 시사

◆ **당창건 75주년과 8차 당대회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수해복구=인민들의 고통 경감이라는 프레임을 형성**

- 양대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보다 수해복구라는 인민들의 고통 경감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역설

* “경제건설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한지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로 될수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

* “피해복구는 실리를 따져가며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해야 할 최급선무이며 모든 국가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단숨에 해제껴야 할 중대사이다. 피해복구 과정을 통하여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질것이다”

◆ **친인민적, 친현실적 당사업으로의 '개선' 강조**

- 연초 사설들에서 친인민적, 친현실적 당사업 방식을 주문하였으나, 이번에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은 그 동안 이러한 주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
- '친인민적'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사업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친현실적'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당장 이득을 낼 수 있는 사업방식을 의미

◆ **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주요 원인을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당과 사회제도에서의 인민적 성격의 퇴색으로 인한 인민들의 신뢰 약화로 설명**

- 세대를 초월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
- 사회주의권 붕괴를 세대교체 과정과 연계하고 있는 점은 소련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특수한 현상의 과도한 일반화에 해당

◆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사업을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월성 선전**

- '복지사회', '인권'을 강조하는 서방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역에 성공한 북한 중 누가 더 '인민의 나라'인지 판단할 것을 주문
- 다른 나라들은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중시하지만 북한은 인민의 고통을 우선시하고 부족한 재원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유일한 나라임을 선전

◆ **당창건 75주년과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해복구사업을 전화위복의 논리로 정당화**

- 2020년을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오히려 수해복구사업을 통해 일심단결이 한층 강화된 해로 정의
- 피해복구전투를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일본새를 새로운 높이에서 하나로 일치시키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로 규정

◆ **당창건 75주년('10월 명절')을 앞두고 수해복구와 방역사업 등 당이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자평**

- ‘성과적으로 달성(또는 실현)’이라는 표현 대신 ‘성과적으로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진한 성과의 완곡한 정치적 수사로 판단

- 또한 ‘10월의 명절을 성과적으로 맞이’ 또는 ‘10월의 명절을 빛내이기’라는 진취적 수사 대신 ‘10월의 명절을 보위’라는 보수적 수사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성과 달성의 어려움을 시사

◆ **당대회 개최 전에 전투성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80일 전투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혁명전통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주지**

- 당창건 30주년 전에 70일전투, 6차 당대회 전에 100일전투, 7차 당대회 전에 70일 전투 전개 사실을 강조

- 80일전투와 관련한 후속 사설들에서도 이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선전재료임을 방증

◆ **8차 당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의 4대 투쟁목표(기본전선) 공개**

-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를 통한 철통같은 방역전선 유지 ▲수해복구작업 연말까지 완수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고 내년 농사준비에 역량 집중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중요대상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최대한 수행

◆ **근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국군이 벌인 여러 전투 중 ‘상감령’ 전투를 특별히 지목**

-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정책과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항미전쟁’의 상징인 ‘상감령’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전

3

개별 사설 분석 9월

❶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자 (9.5)

❍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워 민심을 다독이고 수해복구에서 당원들의 솔선수범을 독려하기 위한 사설

* "오늘 우리앞에는 세계를 휩쓸고있는 무서운 악성전염병의 침습과 련이어 들이닥치는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천태만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신랄하게 묘사

*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천태만상"

❍ 당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하는 두가지 이유를 설명

-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 공고화) ▲인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따르는 것은 당에 대한 믿음 때문 ▲모든 사업을 인민을 위함에 지향하고 복종시킬 때 당에 대한 믿음도 확고

- (8차 당대회를 향한 총진군에서 대중의 정신력 총폭발)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보살피고 이끌어 대중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하는 것이 정면돌파전 성과의 근본열쇠

❍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시대적 요구에 맞는 친인민적, 친현실적 사업으로의 개선)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의 기본인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졌다는 특별한 자각을 갖고 김정은이 지시한 수해복구사업에 앞장서기(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에게 은파구대청리 수해복구사업을 지시) ▲비상방역사업의 장기화 추세에 맞게 인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전개

- (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 결사관철) ▲올해 정치국회의 제시 과업들 철저 관철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정치사업 전개 ▲중심고리를 쥐고 총력 집중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수준과 실력 부단히 제고

❷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9.9)

❍ 정권 수립 72주년 기념 사설

- 정주년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1면이 아닌 4면에 배치한 점이 특이

- 하지만, 여타 사설들과 달리 많은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정권 수립 기념일의 의미를 부각

❍ 정권 수립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조 추세를 고려하여 이민위천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의미를 부각

- 특히,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강조

*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는 것을 천명하시여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밝히시고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 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주요 원인을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당과 사회제도의 인민적 성격의 퇴색으로 인한 인민들의 신뢰 약화로 설명

- 세대를 초월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

- 사회주의권 붕괴를 세대교체의 과정과 연계하고 있는 점은 소련과 같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특수한 현상의 과도한 일반화에 해당

❍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서방국가들과 비교하여 선전

- '복지사회', '인권'을 강조하는 서방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역에 성공한 북한 중 누가 더 '인민의 나라'인지 판단할 것을 주문

❍ ‘공화국’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적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철저히 보장)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국가활동에 주인답게 참가 ▲모든 정책에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고 철저히 인민을 지키기 위한 법제정과 집행 ▲인민의 평가가 모든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 ▲누구나 존엄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받는 사회

- (인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수호) ▲제국주의와의 전쟁 승리 ▲전후 복구건설의 성공적 완수와 부국강병의 대업 진척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 (인민들에게 광휘로운 미래 기약)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등 미래 지향의 교육 설계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등 과학기술력 증대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 중대사로 설정

❍ 전체 인민들과 군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견결히 고수) ▲자주의 혁명노선을 철저히 관철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사업에 박차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여러 당회의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과업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집행 ▲당중앙과의 공동운명 의식 강화

- (국가경제 발전잠재력 비상히 강화)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한 선결조건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 하에 경제전반 정비 및 보강에 역점 ▲금속, 화학, 석탄, 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업부문에서 경제활성화의 돌파구 마련 ▲철도운수부문 고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실현을 위한 투쟁 전개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

-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국풍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비상방역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조속히 완수 ▲당창건 75주년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보내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있게 진행 ▲특히 수도당원들은 김정은이 공개서한에서 지정한 함경남북도의 피해 복구건설에서 선봉적 역할 수행

- (인민생활 안정에 총력 경주)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에서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투쟁 전개 ▲8차 당대회를 특기할 사변으로 맞이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전개

❸ 피해복구전역에서의 승전포성으로 위대한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 (9.17)

❍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조속한 수해복구를 독려하는 사설

* "멀지 않아 우리는 어머니당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 없다는 것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다"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자연재해를 대하는 태도와 접근방법의 우월성을 선전

- 다른 나라들은 자연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중시하지만 북한은 인민의 고통을 중시하고 부족한 재원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

❍ 수해복구 차원에서 당이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열거하고, 이를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과 연계

- ▲피해 발생 즉시 전당적, 전국가적 긴급조치 시행 및 강력한 역량과 수단들을 급파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을 조직하여 함경남북도 피해복구지역에 파견 ▲검덕지구 수해현장에 군부대 투입

❍ 수해복구사업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등 정치적 선전 소재로 활용

- (당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공고화하는 정치적 사업) ▲수해복구전투는 당과 인민 간 동고동락의 실증이자 일심단결 강화의 계기 ▲전화위복의 기적 창조를 통한 승리의 전환점 마련 기회

-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을 다지는 투쟁)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 마련 및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전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앞세우고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며 최상의 질적수준을 담보

- (전체 인민이 상부상조하고 함께 시련을 극복하는 국풍 발휘 투쟁 전개) ▲자본주의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심단결에 기초한 난국 돌파

❍ 당창건 75주년과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해복구사업을 전화위복의 논리로 정당화

- 2020년을 재해와 재난의 해가 아니라 일심단결이 한층 강화된 해로 정의
- 피해복구전투를 서로 배워주고 배우면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와 일본새를 새로운 높이에서 하나로 일치시키는 중요한 반전의 계기로 규정

❍ '당중앙의 의도대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뜻 명심) ▲김정은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은파군 대청리 현지지도 시 보여준 희생적 헌신 각인 ▲김정은이 수도(평양시)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내용 명심 ▲김정은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충성과 헌신하기
- (수해복구 현장에서 당의 결심에 대한 인민들의 결사관철 의지 독려)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은 당중앙위원회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모범적 투쟁 전개 ▲수도당원사단 직속구분대들은 교육자적 태도로 복구공사의 질적수준 제고 및 임무완수의 모범 창조 ▲동원된 건설자들은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 ▲군인들은 기본주력이자 돌격대가 되어 군민대단결을 강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은 복구공사에 필요한 자재, 설비, 물자를 신속히 보장 ▲피해복구 현장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고무

❹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하자 (9.19)

❍ 김정은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수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기념 사설

-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김정은의 연이은 수해복구 현지지도와 군인들의 수해복구 성과를 높이 평가
- 당창건 75주년과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김정은의 연이은 수해복구 현지지도를 통해 수해복구사업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주지

* "피해복구전투가 당이 정한 기일 안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성과적으로 결속될 때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온 나라를 진감하는 로동당만세소리와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되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이 남김없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 8차 당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강국건설의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라는 표현을 사용

- 투쟁강령은 특정한 정책과 전략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지침이므로 전략적 노선의 하위개념에 해당

* 조선말대사전은 강령을 "활동이나 사업 등에서의 중요한 지침이나 중요한 내용과 계획"으로 정의

- 따라서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 제시보다는 기존의 전략적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면돌파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쟁강령(방침)을 제시할 가능성 시사

❍ 9월 17일자 사설에 이어 양대 행사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수해복구=인민들의 고통 경감이라는 프레임을 형성

- 양대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보다 수해복구라는 인민들의 고통 경감을 중시하고 있음을 역설

* "경제건설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한지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로 될수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 이를 통해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

* "피해복구는 실리를 따져가며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해야 할 최급선무이며 모든 국가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단숨에 해제껴야 할 중대사이다. 피해복구 과정을 통하여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질것이다"

❍ 수해복구사업의 지연으로 8차 당대회 결정사항, 특히 국가경제 활성화를 실천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

* "우리가 당 제8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본때있게 관철해나가자면 피해복구전투를 시급히 결속하고 경제전반과 인민생활을 안정된 궤도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 "최근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하루빨리 복구하는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 당창건 75주년과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뜻을 체화하고 명심) ▲김정은의 의도를 받들어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당이 정한 기일 내 복구사업 완수

- (당원들이 복구사업의 개척로 열기) ▲수해복구는 당이 정한 4대 기본전선 중 최전선이므로 완공기일 내 결사관철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모범적 성과 거양 ▲더 좋은 살림집과 환경에서 살게하려는 당중앙의 의도 전파

- (수해복구 현장지휘성원들의 조직자적 역할 최대 발양) ▲공사기일 최대 단축을 위한 작전과 설계, 조직사업 전개 ▲이신작칙의 모범 보이기 ▲수립된 계획 무조건 관철 및 사공의 질 철저 보장

-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수해복구속도 최대화)

- (전체인민들의 수해복구사업 적극 지원)

- (당조직들의 역할 최대한 제고)

❺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쳐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9.21)

❍ 자연재해로 인한 큰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추수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최근시기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은 조건에서 소출감소를 최대로 줄이고 알곡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한다"

- 당 활동의 최고원칙인 인민생활향상 중 먹는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8차 당대회를 향한 총진군의 활력소로 정의

❍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내적동력 강화 차원에서 정면돌파전의 주타격방향인 충분한 식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

* "그 어떤 혹독한 격난속에서도 끄떡없이 내적동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자면 결정적으로 쌀이 많아야 한다"

❍ 알곡생산계획 수행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적기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진행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동시 진행(배천군의 경험 따라배우기) ▲생산목표 수행을 위한 일군들의 결사 각오와 분발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 총발동을 통한 집단적 경쟁열풍과 다수확열풍 일으키기 ▲질좋은 전력 공급 ▲이동식탈곡기와 각종 농기계부속품 지원

3

개별 사설 분석 10월

❶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이자 (10.1)

❍ 7기 18차 정치국회의 결정 관철을 독려하는 사설

- 북한은 9월 30일 김정은 주재 하에 동 회의를 개최, 코로나-19 방역사업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당창건 75주년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

- 남측 공무원피격사건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9.25)에 이어 동 회의에서 동 문제가 언급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달리 언급 부재

- 9월에는 수해복구 문제에 집중하다가 10월 첫 사설로 방역대책 문제를 게재한 것은 당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주의·경계하고 방역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

* "현시기 비상방역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것은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빛내이고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높이 벌리는 여기에 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며 앞으로 당 제8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고 대회에서 제시될 휘황한 설계도따라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을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북한 나름의 진단을 제시

-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전파력이 증가하고 전파 경로의 다양화 ▲전세계 사망자수가 100만명 초과 ▲여러 나라에서 백신개발 등 여러 대응책을 취하고 있지만 근절에는 미력한 상황

❍ 비상방역사업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비상방역기관의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방역사업 실시) ▲대증요법보다는 철저한 예방요법이 효과적 ▲사소한 빈틈도 없이 2중, 3중의 공격적이고 철저한 방역진지 구축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소독방법 적용을 통한 안전율 최대한 제고 ▲어떠한 특수도 허용하지 않고 중앙비상방역기관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강 확립

- (지속적인 위생선전사업의 형식과 방법 개선) ▲비상방역사업관련 주의사항 선전자료들을 빠짐없이 전달하고 선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세계 여러나라들에서의 조기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방역 실패와 관련한 선전 강화 ▲국가의 조치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 협력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교양사업 전개

- (철저한 방역규정 엄수) ▲비상방역전에서 예외적 인물 불허 ▲자연재해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각성 ▲상호 협조하고 상호 통제하는 분위기 고조

- (각급 당조직들의 책임과 본분 완수)

❷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10.8)

❍ 김정일 당총비서 추대 23주년 기념 사설

- 북한은 1997년 10월 8일 김일성 사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등 공동 명의로 김정일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 당시 김정일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아니라 '당 총비서'로 호칭하고, 선거방식이 아닌 추대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당 안의 총비서'에서 '초당적 총비서'로 격상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또는 유일한 지침)으로 틀어쥐고"라는 표현으로 볼 때,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지도사상과 지도적 지침으로 지속될 가능성 불배제

- 그 동안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념',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의 담론발전 추세와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로 수놓아가고 있다"라고 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울 가능성 시사

-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라는 명제를 활용하여 양자를 조합할 가능성도 주목

❍ 김정일의 당건설 업적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

-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혁명적 당 건설 ▲인민이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 발전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개척해 나가는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

❍ 김정일의 당건설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당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 개척) ▲김정은 결사옹위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

-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 ▲간부대열과 당대열의 질적 공고화 실현 ▲초급당과 당세포의 역할 제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강철같은 기강 확립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 기풍 확립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수령의 사상과 위업 실현에 헌신

-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모든 당사업을 인민을 위함을 지향하고 복종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으로 개선 ▲방역사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발휘 ▲세도와 관료주의, 특권과 특세,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 전개

- (수해복구전투에 전력 경주) ▲수해복구는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 경감을 위해 당이 전력을 투구하는 최전선 ▲수해복구 현장에서 전화위복의 기적 창조 ▲군민대단결 실현 ▲상부상조와 동고동락하는 정신도덕적 미덕 발휘 ▲사회주의선경으로의 전변

❸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정치로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10.10)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심 주제로 한 당창건 75주년 기념사설

- 지난 75년의 노동당 역사와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인민대중제일주의 관점에서 평가

❍ 당창건 75주년(‘10월 명절’)을 앞두고 수해복구와 방역사업 등 당이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자평

- '성과적으로 달성(또는 실현)'이라는 표현 대신 '성과적으로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진한 성과의 완곡한 정치적 수사로 판단

- 또한 '10월의 명절을 성과적으로 맞이' 또는 '10월의 명절을 빛내이기'라는 진취적 수사 대신 '10월의 명절을 보위'라는 보수적 수사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성과 달성의 어려움을 시사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영원한** 정치이념이자 정치방식으로 정의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이념과 정치방식으로 정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처음으로 판단

- 앞의 사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영원한 정치이념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아 당분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실천 이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점증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정치리념, 정치방식이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도 인민대중제일주의이고 우리 당의 력사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행로였으며 우리 당이 75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빛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바로 여기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이 있고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비껴있다"

❍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

-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철저히 구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 발전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제고에 모든 것을 복종 ▲당과 인민대중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향도적 역량 구축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주요 당회의 결정과 지시 무조건 결사관철 ▲당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인민을 위한 당의 걱정과 고민 나누기

- (당사업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친인민적, 친현실적으로 개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기풍 확립 ▲자기 지역, 자기 단위 인민들과 종업원들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헌신적 투쟁 전개 ▲인민의 희망과 요구, 의식수준과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어려울수록 더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사업 전개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전개

-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 개척) ▲경제토대 개정 및 가능한 생산잠재력 총동원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 전개 ▲인민경제선행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서의 혁명적 성과 도출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서의 생산적 앙양 ▲수해복구전투에서의 기적과 위훈 창조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비상방역사업 전개

❹ 80일전투에 총매진하여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나가자 (10.16)

❍ 10월 5일 개최한 7기 19차 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80일전투를 독려하는 사설

- 당창건 75주년을 종료하고 8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당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막바지 전투성 노력동원운동

* "80일전투는 당창건 75돐을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 제8차대회를 보다 의의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 공격전이다"

- 특히,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성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

❍ 당대회 개최 전에 전투성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80일전투와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혁명전통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민들에게 주지

- 당창건 30주년 전에 70일전투, 6차 당대회 전에 100일전투, 7차 당대회 전에 70일전투를 전개한 사실을 강조

- 80일전투와 관련한 후속 사설들에서도 이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인 선전재료임을 방증

❍ 8차 당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의 4대 투쟁목표(기본전선)를 공개

- ▲국가비상방역사업 강화를 통한 철통같은 방역전선 유지 ▲수해복구작업 연말까지 완수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고 내년 농사준비에 역량 집중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중요 대상건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최대한 수행

- 각 투쟁목표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앞의 사설들에서 제시한 것과 대동소이

❺ 80일전투에서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떨치자 (10.19)

❍ 김정은의 함경남도 수해복구지역 현지지도를 기념하는 사설

* 노동신문 10월 15일자는 김정은이 함경남도 신포시와 흥원군 수해복구지역을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

- 함경남도는 김정은이 수도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수해복구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 대상지역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수도핵심당원들의 '전위적' 모범을 창출하여 전체 당원들의 분발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

* "우리 당이 엄혹한 시련속에서 80일전투의 작전도를 펼치고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는 것은 수백만 당원들만 분발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전체 당원들이 80일전투에서 견지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김정은의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억세게 투쟁) ▲김정은과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열혈충신이 되기 ▲김정은의 걱정을 덜어주고 믿음에 보답하는 각오 ▲맡겨진 전투목표를 당이 정한 기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기필코 점령

- (80일전투의 최전방인 4대 투쟁목표 수행에 총력 경주)

* 4대 투쟁목표 : 비상방역전선, 수해복구전선, 올해 농사결속과 내년 농사준비, 중요대상건설 완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

- (자기 단위, 자기 초소에서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 고조 및 인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와 도전들과의 투쟁 전개) ▲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의 투쟁 ▲조건과 환경이 불리해서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의 투쟁 ▲수입에 의거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와 관점과의 투쟁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본위주의적 태도와의 투쟁

-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 최대화)

❻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위훈은 조중친선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10.25)

❍ 1950년 10월 25일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사설

- 당시 중국이 건국초기의 여러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군을 파견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를 표시

❍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국군이 벌인 여러 전투 중 '상감령' 전투를 특별히 지목

-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대 중국 압박정책과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항미전쟁'의 상징인 '상감령' 정신을 대대적으로 선전

❍ 북중혈맹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

- ▲역대 최고지도자 간의 돈독한 우의관계 과시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북한의 중국내전 참전으로 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 ▲최근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승화, 발전

❍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두 가지 업적을 선전하면서 북중 간 동병상련의 입장을 시사하는 가운데 양국 간 관계 강화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 실현 및 빈곤퇴치공격전 수행 ▲내외의 도전들을 이겨내며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 수호

*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힘차게 전진시키기 위한 길에서 언제나 중국당과 정부, 인민과 굳게 손잡고나아갈것이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친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❼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8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10.26)

❍ 80일전투 개시 이후 보름을 맞이하여 당조직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사설

* "우리 당이 지금과 같은 엄혹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벌릴 결단을 내린 것은 전당의 당조직들을 발동할 때 극복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 확신의 표출이다"

❍ 80일전투의 성과 여부를 도약과 고난의 분수령으로 정의함으로써 8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절박감을 표현

* "오늘의 80일전투 성과여부에 따라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지금까지 진행한 불사신의 강행돌파전을 장쾌한 전략적공세로 도약시키는가 아니면 차지한 지탱점을 내주고 고난의 진펄로 되밀려 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 80일전투에서 당조직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제시된 투쟁과업 완수에 당사업의 화력 집중) ▲4대 투쟁목표 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도록 고무추동 ▲일별, 주별, 월별 전투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인 작전 방안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철 ▲당책임일군들은 현장에 머물면서 구체적인 실태장악과 치밀한 작전, 맵짠 총화와 부단한 재포치를 통한 전투목표 수행 ▲김정은의 영도방식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의 정신력 발동

- (위대성 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기) ▲김정은의 검덕광산 수해복구현장 현지지도 등 애민헌신의 위대성을 대중 속에 체득시키기 ▲자애로운 어버이가 있기에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가 가능하다는 해설선전 전개 ▲80일전투의 승리적 결속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선전 강화

- (대중의 충성심과 창조 열의 최대 발양을 위한 집중적 사상공세) ▲선전선동역량과 수단 총동원 ▲80일전투 과정에서 발휘되는 여러 모범들을 발굴하여 일반에 소개 ▲뒤떨어지고 침체한 것을 불사르기 위한 강도 높은 사상전 전개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 맹렬히 전개

-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철저히 구현) ▲80일전투의 주된 목표는 인민의 생명안전과 생활안정 보장 ▲80일전투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피기 ▲후방사업을 당위원회 사업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 창출 ▲인민들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자기 단위를 단합된 애국집단으로 만들기

- (기층당조직들의 역할 제고)